

INSIDE

털끝까지 살아있네

명령어 한마디면 동영상 뚝딱

요즘 청소년

2

유레카. 과학

10

경제야 놀자

12



Cover Story

인공지능의 진화 어디까지



사진①②는 오픈AI가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 '소라(Sora)'를 통해 만든 동영상 한 장면.

"한 스타일리시한 여성이 따뜻한 네온 불빛과 도시 간판이 가득한 도쿄 거리를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과 긴 붉은 드레스, 검은 부츠,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습니다. 거리는 젖어 있고 화려한 조명 빛이 반사되어 거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 기업인 오픈AI가 '텍스트 투 비디오(Text to Video)' 인공지능(AI) 모델인 '소라(Sora)'를 공개하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실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부터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보이는 영상까지, '이런이런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단순히 몇 문장을 입력해 얻어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간단한 텍스트만 입력하면 소라가 최대 1분 길이의 초고화질 동영상을 제작해줍니다. 정지된 이미지를 입력해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고 기존 동영상을 합성하거나 누락된 프레임을 채우는 일도 가능합니다.

오픈AI 측은 "소라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 입력된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한 후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프롬프트에서 요구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물리적 세계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을 하늘로 던지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유리에 사물이 비친다는 것은 인간만이 알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기존에는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난 직후부터 현실 세계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물리적 법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AI도 많은 동영상을 학습하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입니다.

오픈AI 연구진은 소라가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AGI)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AGI는 모든 상황에 인간처럼 적응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두루 활용할 수 있는 AI를 뜻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간처럼 생각하는 AI는 언제쯤 나올까'라는 질문에 5년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은 크게 달라진다"면서 "만약 '인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인간 수준의 인식을 가진 AGI의 등장은 머지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순 기자

안경만 잘 써도…“나 오늘은 ‘긱 시크룩’이야”



소곤소곤
우리들 이야기

괴짜 모범생 뜻하는 ‘긱’
뿔테·무테 안경 포인트

걸 코어룩 소녀미 물씬
가방·머리에 리본장식도

“내 추구미는 ○○이야.”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추구미’라는 단어는 잘파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잘 보여줍니다. 추구미는 ‘추구하는 미적 표본’의 줄임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옷차림과 분위기, 라이프스타일까지 닮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10대는 유행하는 브랜드에서 로고가 돋보이는 옷을 선택해 입었지만 이제는 누가 그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소화했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속 좋아하는 연예인의 스타일을 따라 하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예인 사이에서 유행하는 패션은 무엇일까요? 연예인들도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션업계를 휩쓸었던 올드머니룩(부를 물려받는 상류층의 옷차림)은 올해 기본에 충실한 ‘긱 시크룩’으로, 밸레복과 일상복을 매치하는 밸레코어룩은 ‘걸 코어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긱 시크룩

두꺼운 안경에 체크 셔츠, 특정 분야에 몰두한 채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 과거에는 고지식하고 촌스러운 괴짜 모범생 스타일을 ‘너드(Nerd)’ 혹은 ‘긱(Geek)’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너드룩이 기존의 멋이 없고 어색했던 이미지에서 탈피해 ‘긱 시크룩’이라는 세련되고 멋스러운 스타일로 진화했습니다.

‘긱 시크룩’은 ‘긱(Geek)’과 세련됨을 의미하는 ‘시크(Chic)’의 합성어입니다. 긱 시크룩은 컨웨이를 넘어 연예인들의 일상 패션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르세라핌 허윤진, 뉴진스 하니, 에스파 카리나 등이 긱 시크룩을 데일리하게 연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긱 시크룩의 핵심은 안경입니다. 촌스럽다고 여겨졌던 뿔테나 무테 안경이 오히려 포인트 아이템이 되어줍니다. 틈에 박힌 패션 공식을 거부하고 단정한 모습을 잊지 않는 가운데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긱 시크룩의 핵심입니다.

안경은 독특하면서도 시크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가로 폭이 넓고 세로 폭이 좁은 안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긱 시크룩은 포인트 아이템을 어디에,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니트 카디건



제니 인스타그램



허윤진 인스타그램

셔츠 등 단정한 스타일의 아이템을 활용하면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크 무늬와 같은 강렬한 패턴의 아이템을 활용하면 과감하고 독창적인 긱 시크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걸 코어룩

리본 끈이 달린 나풀거리는 원피스, 반묶음 머리에 살포시 얹은 리본 모양 끈 그리고 사랑스러운 리본 장식이 달린 보 플랫슈즈까지. 지난해 밸레 코어룩과 함께 등장한 ‘리본 장식’은 2024년 SS 시즌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밸레 코어룩 열풍 이후 2024 SS 시즌에는 ‘걸 코어룩’이 대세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걸코어룩은 ‘걸(girly)’과 ‘코어(core)’의 합성어로, 페미닌한 매력을 강조하는 트렌디하고 현대적인 패션을 의미합니다. 밸레코어룩의 우아하고 순수한 이미지와는 달리, 걸 코어룩은 더욱 활기차고 일상적인 느낌을 연출합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는 걸 코어룩 스타일링의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밸레복 디자인을 응용한 원피스, 니트 밸레리나 토시, 메리제인 슈즈 등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여성스럽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본 장식이 달린 액세서리나 슈즈를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을 더합니다. 리본 장식은 웃뿐만 아니라 가방, 모자,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영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대환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 다50736
발행간격 : 격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천장 뚫린’ 금·비트코인…연일 사상최고치



게티이미지뱅크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尹 “의료비 500배 늘때 의대정원 2배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습니다. 40개 대학을 상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 조사도 마친 만큼 정원 확장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의사들의 불법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생을 총 1만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

▶ NIE 준비하기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선 배경을 알아봅시다.
- 상급 종합병원 외에 중급 규모 2차 병원, 개원가 상황은 어떤지 조사해 봅시다.

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 남은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환자를 추가로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 3월 6일자 A3면 보도

치솟는 비트코인 1억원 돌파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사이클 전환기를 맞아 금리에 민감한 자산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더니 이번엔 금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비트코인도 역대 최고점 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126.30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 선물 상품이 만들어진 1974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금값이 전 고점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를”

한국은행이 인구 충격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인구 충격에 관해 세부 인력 대책을 제시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만명가량 부족했던 돌봄 일손은 2032년 38만~71만명으로 늘고,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은 외국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노동기구(ILO) 협약상 내·외국인 임금을 차별 적용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1%에

▶ NIE 준비하기

-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 최근 미국 기준금리 변동에 관해 분석하고, 증시 전망이 어떨지 생각해 봅시다.

이날 비트코인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역대 최고가인 6만9000달라를 코앞에 둔 6만8686달라 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3560억달러(약 1800조원)로 ‘은(銀)’에 근접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대표 자산입니다.

▶ 매일경제 3월 5일자 A1면 보도



2000명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

2100달러

2024년 3월 4일
사상 최고치 경신한 금값

155만명

2042년 기준
돌봄 일손 부족 규모

▶ NIE 준비하기

- 저출생·고령화의 현 실태와 원인을 알아봅시다.
-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주면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이에 한은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해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매일경제 3월 5일자 A1면 보도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김매일경제

AI 챗봇에 물었다 …“친구들과 놀 계획 짜 줘”

난 중학교 1학년이야.
서울시 종로구 필동1가에
살고 있어.

방과 후, 5시부터
친구들과 놀려고 하는데
뭐하고 놀면 좋을까?

시간대별로
이동시간까지 감안해서
시간표를 짜줘.

다들 한 번쯤 인공지능 챗봇(챗GPT·Gemini)으로 과제 작성, 면접 준비 등 다양한 학습 영역에 활용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챗봇이 우리의 여가시간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매일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매일 군(가칭)이 직접 사용해 본 결과의 일부입니다. 새 학기 첫날, 김매일 군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던 하루가 끝나고, 김매일 군은 새로운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친해질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매일 군은 인공지능 챗봇인 제미나이(Gemini)에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오후 5~6시 ▶ 덕수궁 야경 감상(역사 및 문화체험)

장소 : 덕수궁(서울 종로구 정동)
이동 : 학교에서 도보 이동 또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약 15분 소요)
활동 : 덕수궁 정원을 산책하며 아름다운 야경 감상
아름다운 풍경 사진 촬영하기

꿀팁 : 야간 입장료는 무료이며(만 25세 이하), 21:00까지
개장합니다. 월요일에는 궁궐 내 전시관이 문을 닫
으므로 주의하세요.

오후 6~7시 ▶ 명동 거리 구경 및 간식 먹기

장소 : 명동 거리(서울 종로구)
이동 : 덕수궁에서 도보 이동 또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약 10분 소요)
활동 : 다양한 상점 구경, 맛있는 길거리 음식 먹기

오후 7~8시 ▶ 남산타워 전망대 방문

장소 : 남산타워(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이동 : 명동에서 지하철 4호선 남산역 하차 5번 출구
(약 20분 소요) 남산 케이블카 또는 버스 이용
(약 15분 소요) (*오류)
활동 : 서울 야경 감상, 남산 케이블카 탑승

꿀팁 : 케이블카 탑승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예상하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8~9시 ▶ 남산공원 산책

장소 : 남산공원(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활동 : 남산공원에서 산책하며 야경 감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꿀팁 : 남산공원에는 다양한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후 9~10시 ▶ 집으로 돌아가기

이동 : 남산공원에서 지하철 4호선 남산역 5번 출구
(약 20분 소요) + 집까지 이동 (*오류)
꿀팁 : 지하철 시간을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잠깐!

인공지능 챗봇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서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 제미나이 답변에서도 ‘이동수단’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재검증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예령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챗GPT ‘달리’를 이용해 만든 중학교 1학년 남자 이미지. 덕수궁 오후 산책. 한글 간판이 즐비한 명동거리. 남산 케이블카 애경 등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5초 내외의 짧은 시간만으로 뚝딱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글·한자 간판엔 글자가 뒤집어 보이는 등 아직은 오류가 있다.



“AI로 일자리 소멸 시작” “첨단 기술 혁신 뒤쳐져”

EU의 AI 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AI 기술 이점은 활용하되 잘못된 정보의 확산, 국가 안보 위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규제 법안에 따라 안면인식 기술의 생체 정보 수집은 금지됩니다. 단 테러 예방, 강력 범죄자 추적 등에는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EU가 첫 규제법을 내놓은 만큼 국내에서도 AI 규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의있어요

▶ 인공지능의 윤리불감증

AI는 ‘알고리즘(algorism)’을 이용해 수십억 개의 입력 데이터를 분석 및 입력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때 알고리즘이 과거의 데이터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편향성을 학습하고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2016년 AI 최초로 세계미인대회 심사를 맡은 ‘뷰티 디 애이아이(Beauty.AI)’가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 여성들은 선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AI 챗봇 ‘이루다’가 가입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유색인종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해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챗GPT 플러스’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AI가 기존의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 및 확대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업률 높아질 위험

한국은행에 따르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국내 일자리 규모는 전체 직업의 12%인 341만개로 추정됩니다. 현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특정 직업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AI 노출지수’를 살펴보면 화학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전동차 기관사,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대표 고소득 직업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역시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활용이 확산되고 실업률이 급증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인간의 영역과 기술의 영역을 구분하고 AI를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 혁신 저해

AI업계는 규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AI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선제적 법제화에 나설 경우 향후 기술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창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창업자는 “AI가 두렵다”면서도 “범용 인공지능(AGI)의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가 영원히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전문가 신진우 카이스트 AI대학원 석좌교수는 “후발 주자인 한국 입장에서 각국의 AI 규제 움직임은 기회”라며 “굳이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 방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성장하는 산업을 막아서는 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4월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5년간 AI로 글로벌 고용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사무 행정, 경리 분야 등 83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반면 빅데이터 분석, 기계학습(머신러닝),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일자리가 6900만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AI는 국가 간 전쟁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무기들은 증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병자를 투입하는 기존 전쟁보다 윤리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예령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1

AI에게 윤리를
줄 수 있을까

2

AI가 불러올
일자리·산업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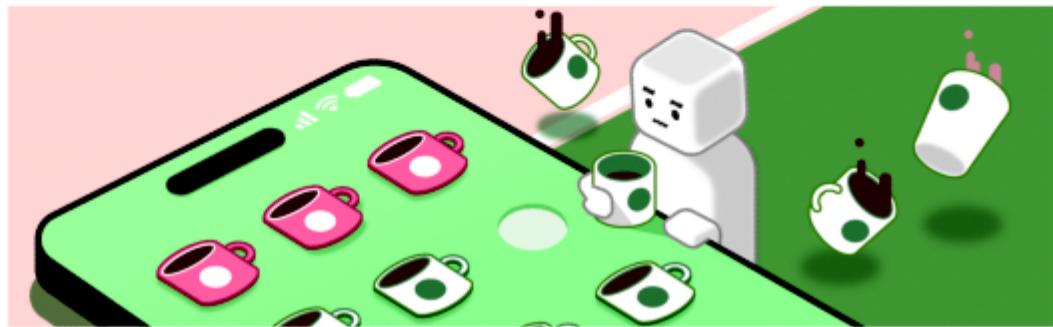
3

AI 기술발전
어디까지 왔나

굿즈가 뭐기에… 음료 17잔 꼭 채워야하나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Q.

얼마 전 제가 즐겨 이용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나 음료 열일곱 잔을 먹어서 스템프를 모으면 다이어리나 불펜을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일곱 잔 중 세 잔은 특별 음료 중 골라야 하는 거 있죠. 평소 전 아메리카노만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일반 음료는 열네 잔이 다 찼는데, 나머지 특별 음료 세 잔이 문제였죠. 크림이 듬뿍 들어간 커피나 팔기 음료 같은 거였는데요, 저는 다이어리를 무료로 받고 싶은 마음에 제 취향이 아닌 음료 세 잔을 주문했어요. 행사 마지막 날에 말이죠! 하지만 느끼한 크림을 못 먹어서 음료들은 반도 못 먹고 버리고 말았어요. 다이어리를 받아서 기쁘긴 했는데, 이렇게 한 게 합리적이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음료 3잔의 비용과
무료 다이어리 효용 비교
사은품 만족감 더 크다면
합리적인 비교 선택**

사은품을 받으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일.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연말이 되면 몇몇 커피전문점에서 주는 다이어리 등의 사은품을 받고자, 한 번에 여러 잔의 에스프레소를 주문해서 텁블러에 담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도 본 적 있어요. 저는 무조건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동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은품이 내게 주는 만족감과 이를 위해 소비해야 하는 비용을 따져보죠. 사은품을 받기 위한 소비라고 해도 내게 주는 만족감이 있다면 이도 함께 고려하고요. 본인 취향이 아닌 음료를 세 잔이나 주문해서 마다가 느끼해서 버렸다면, 이 소비로 인한 만족감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음료 세 잔의 가격이 비용이고 편익은 사은품으로 받은 다이어리가 주는 만족감일 거예요. 다이어리가 주는 만족감이 음료 세 잔의 가격보다 높았다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집 앞에 단팥죽 가게가 생겼어요. 개장 기념으로 3일 동안 단팥죽 무료 행사를 하더라고요. 평소 단팥죽을 즐겨 먹는 건 아니지만, 새로 생겨 궁금하기도 했고 무료라고 하니 흑하는 마음에 줄을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 가게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산을 사서 쓰고 기다리더라고요. 저도 고민하다 우산을 사서 쓰고 기다렸어요. 저렴한 비닐우산은 다 팔려서, 일반 장우산을 샀는데 가격이 1만원이었어요. 제가 무료로 먹은 팥죽의 가격은 8000원! 제게 우산은 많아서 새로 산 우산은 한구석에 모셔두고 있답니다.

공짜 팥죽을 먹으려고 그보다 비싼 우산을 산 져. 게다가 40분을 기다리기까지! 40분 동안 추위에 떨어서인지 감기까지 걸린 거 있죠! 제가 우산을 사고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때까지 기다린 15분이 아깝

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15분이나 기다렸는데, 그냥 가기는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에서 그때까지 15분을 기다렸다는 건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차피 그 15분의 기다림은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회수할 수 없는 노력이나 비용을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 하는데요, 선택할 때 매몰비용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산을 사서 더 기다릴지 말지 고민할 때는 '단팥죽이 주는 만족감'과 '우산의 가치 및 추가로 더 기다리는 노력의 가치'만 비교했어야 합니다. 전자가 크다면 우산을 사서 쓰고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거지만, 후자가 더 크다면 그동안 기다린 15분은 고려하지 말고 집에 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지요. 제게는 후자의 효용이 더 커진 것 같아요. 1만원이나 주고 산 우산은 제게 필요하지 않고 짐만 되는 물건이었고, 추가로 25분이나 떨면서 기다리고 감기까지 걸렸잖아요! 제가 얻은 편익은 단팥죽의 가치는 8000원이었고요.

질문해주시는 분도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 취향에 맞지 않는 음료 세 잔을 주문할 때, 그동안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모은 열네 개의 스템프가 아깝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인 열네 개의 스템프가 아깝다는 생각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이 돼요.

또한 '무료'로 주는 다이어리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했을 거고요. 사람들에게 '무료'라고 하는 데 약해지는 심리가 있어요. 기업들은 이를 알고 '무료' 이벤트를 종종 기획하곤 하죠. 무료 이벤트를 잘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그보다 큰 편익을 얻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료라는 데 혹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서울 양정중학교 사회과 교사

용돈 아껴 딱 1년만 펀드 적립하기 도전!



© Getty Images



김형리의
투자 첫걸음

올해 2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A군은 지난 명절 세뱃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다. 웃과 가방, 먹거리, 게임 등 하고 싶은 것들을 소비하고 나면 아껴 써볼걸, 뭔가 투자를 해서 불려볼걸 매번 후회한다. A군은 설날과 추석 1년에 두 번 받는 용돈 투자처를 찾아보고 싶다. 소액의 자금으로 투자 세계에 막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여유 시간을 두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 투자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성향을 분석한 후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가장 투자 위험이 높고 어른들도 이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통상 투자 방법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펀드 상품 가입,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주식 거래 등이 언급된다. 이번 호에서는 펀드 상품을 통한 투자 방법을 알아보자 한다.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 펀드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방문할 때는 학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신분증(방문 예정인 부모 중 한 명), 도장 등을 준비해 가야 한다. 펀드 상품은 일반적인 예·적금과 달리 학생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게 불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이 위의 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에 내방한 후 가입해야 한다.

1. 펀드 상품 투자하기

은행 펀드 상품의 경우 1만원 이상 불입해 신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자유롭게 불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자동이체 등록을 통해 고정적인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 할 수 있고, 용돈이 남아 여윳돈이 생겼다면 추가 입금도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매일, 매주, 매월 등 유형이 다양하나 보통 매월 납입을 선택한다. 분산 투자를 더 하고 싶다면 매주를 추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뱃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입출금통장에 100만원을 입금한 후 매주(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2만원씩 자동이체 등록을 한다면 50주로 분산 입금되면서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를 코스트에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펀드의 장점 중 하나로꼽히는 코스트에버리지 효과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펀드 계좌

에 넣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가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좌수를 매수하고, 주가가 내릴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좌수를 매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입 단가 평준화 하락 효과, 즉 코스트에버리지 효과가 생기게 된다.

2. 펀드 상품 초보 투자자라면

-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란:

▶ 코스피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 가격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하고 주식 수를 가중평균해 작성한 지수다. 코스닥지수는 코스닥시장에서 발표하는 주가 지수로 코스닥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이 중심이 되는 주식시장을 뜻한다.

- 초보자인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 통상 채권혼합형(주식 비중 20~40%+채권) 펀드로 첫 걸음을 떼길 추천한다. 채권혼합형은 안정적인 채권펀드에 60~80%를 투자하고, 나머지 20~40%는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코스피나 S&P지수를 추구하는 인덱스펀드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코스피가 2600인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 적립식 펀드는 매입 시기보다 환매 시기가 더 중요하다. 매주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1년 이상 불입하면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매입하는 시기보다는 코스피가 높은 시기를 선택해 환매해야 수익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매 시기가 중요하다.

3. 펀드 상품 투자 효과는

소액의 용돈을 쪼개서 펀드에 가입하거나 ETF,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처음에는 의문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펀드에 가입해 매주 2만원씩 불입하다 보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생길 것이다. 언론에 나오는 경제 동향과 증권시장 흐름을 귀담아듣게 되고 코스피·코스닥지수 변동 추이를 체크하는 습관도 생길 것이다. 펀드 상품을 시작으로 좀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 ETF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초체력도 기를 수 있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센터장



시사용어 CHECK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Cost Average

주식이나 펀드에 정액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매입 단가를 평준화하는 것. 증시가 상승할 때 수익을 볼 수 있고 증시가 하락할 때는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

영조 앞에서 방귀 뀐 신하… 실록에 박제됐대요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세종 13년, 임금께서 “태종실록이 거의 완성되어 가니 내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 우의정 맹사성이 아뢰기를, “실록에 기록한 것은 모두 당시 일을 후세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보시더라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후세의 임금들도 이를 따라할 것이니 사관(史官)들이 두려워하여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은 그 말을 따랐다.

이궁익 ‘연려실기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왕의 기록을 날짜 순으로 기록한 역사서다. 중국의 실록은 후대 황제나 대신이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치로 솔직하게 기록할 수 없었고, 사관의 논평조차 실을 수 없었다. 그에 비해 조선의 왕들은 실록과 사초(사관이 기록한 초기 기록)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관들의 직설적인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실록은 위 자료처럼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권력 앞에서도 양보하지 않은 사관들의 노력과 이에 호응한 임금의 배려 덕분에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왜 중요한가요.

조선은 ‘기록의 나라’로 불립니다.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승정원일기(승정원에서 매일 기록한 국정 기록), 일성록(조선후기 왕의 일기 형식의 기록)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눈이 많고 많은 기록이 남으면 권력자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조선 왕조는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게 기록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권력 부정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사관은 어디까지 기록할까요.

사관은 항상 왕 옆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심지어 말을 타다가 떨어진 태종이 부끄러워 적지 말라고 말하니, 사관이 ‘왕께서 기록에 남기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태종 때 민인생이라는 사관은 편전에서 업무를 보는 태종을 엿보다가 걸리기도 했고, 밤늦게 왕이 편히 쉬는 곳까지 따라와서 왕과 부딪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조 때 회의 중 방귀를 뀐 유근의 기록까지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관은 왕 옆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의견까지 적었습니다. 조선후기 현종 때 극심한 흉년으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에 좌의정 원두표가 반대하자, 이를 적었던 사관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원두표는 정승 신분으로 주상의 뜻에 영합하여 총애를 유지하려고만 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너무도 애석한 일이다.”

다른 나라에도 실록이 있나요.

세계적으로도 500여 년간의 왕조 기록이 하나의 체계 아래 기록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왕조 실록에 비해 실제 지면(기록)이 훨씬 많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유교문화권에서 많은 실록이 편찬되었으나 후손 왕이 보지 못한다는 원칙을 지킨 나라는 조선왕조뿐입니다.

동아시아 대부분의 다른 나라 실록은 필사본이지만, 조선왕조실록만 거의 대부분이 활자로 인쇄되었습니다. 한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문화재청

두 개만 만들었던 다른 나라 실록은 필사로 충분했지만, 처음부터 후세에 영구히 전할 목적이었던 조선왕조실록은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할 목적으로 활자 인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1명의 왕에 실록이 2개인 경우가 있나요.

정권이 바뀌면서 실록이 다시 편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괘해군 때 북인이 편찬한 ‘선조실록’을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수정하여 ‘선조수정실록’을 만들었습니다. 봉당대립이 극심했던 조선후기에 현종실록, 숙종실록, 경종실록은 다시 편찬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록을 개정했다고 해서 앞의 실록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앞의 기록은 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새로운 실록을 만든 것입니다.

실록은 어떻게 보관하였나요.

실록은 사고(史庫)에 보관하였습니다. 사고는 실록이나 왕실의 기록 등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창고로 수도인 한양 춘추관(역사를 기록하는 관청)에 하나를 두고 지방에 3곳의 사고(충북 충주·경북 성주·전북 전주)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전국 사고의 실록은 모두 없어질 위기에 처했고 실제 한 곳을 제외한 다른 곳의 실록은 소실되었습니다. 다행히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안의와 손흥록은 전주 사고의 실록과 태조의 어진 등을 소와 말 30여 마리에 싣고 내장산 동굴로 가져가 숨겼습니다. 당시 64세의 안의, 56세의 손흥록은 그곳에서 1년 동안 실록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전주 사고에서 실록을 움긴 1592년 6월 22일은 2018년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 지킴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종대왕의 기록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란 이후 실록 보관의 중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안전을 위해 한양 외에도 지방 산간의 4곳에 사고(봉화 태백산·무주 적상산·강화 마니산·평창 오대산)를 설치하였습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1 조선에 세계기록
유산이 많은 이유

2 조선왕조실록이
활자 인쇄를 선택
한 배경

3 중국 실록과
차별화되는 점은

피카소는 왜 모든 어린이를 예술가라고 했을까



1937년작 '게르니카'



정도영 선생님의 재밌는 미술사 강의

“아야~! 피카소 뺑치는데?”

초등학교 시절 그림일기를 살펴보시던 아버지께서 종종 말씀하셨다. 어렵게도 일기에서 표현된 그림이 화가처럼 잘 그려냈다는 뜻은 아니었다. 색종이를 구겨 놓은 것처럼 눈·코·입 위치가 제멋대로 붙어 있는 모습이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과 사뭇 닮았기 때문이었다.

피카소라는 이름은 미술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 아버지도 거론할 정도로 대중에게 친숙한 화가이다. 그는 큐비즘을 대표하는 미술가이며 회화, 조각, 도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20세기 현대미술 최고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피카소의 주관적인 해석의 펼쳐진 독특한 화풍은 당시 충격적이었지만,

현재까지 피카소를 창조 미술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피카소의 그림은 달랐다. 미술 영재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는 애매모호함이 있지만, 피카소만큼은 미술 영재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생각된다. 1896년 작품인 ‘첫 영성체’에서 보여주듯 15세에 이미 고전주의 화풍의 정점을 다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전통적인 화풍에 얹매이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갔다.

“라파엘로처럼 그리기 위해 4년이나 걸렸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쳐야 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처럼 피카소의 그림은 노년으로 갈수록 어린아이의 그것과 닮았다. 왜 피카소는 그토록 어린아이처럼 그리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는 피카소는 순수한 어린아이들 동경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창조성의 원동력은 무한한 호기심이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도 아이는 다양한 사물과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 자유롭고 순수한 시선을 통해 자신만의 해석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나간다. 그리고 아직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이 형성되지 않아 제약이 없다. 이는 예술가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인 것과 동시에 기성 예술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는 아이들

의 독특한 창조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이다. 문제는 이들이 커서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느냐이다.”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지식을 채워나간다. 동시에 사회라는 시스템에 길들여진다. 이곳저곳 뒷으로 나가는 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으면서 무한했던 호기심과 상상력은 점차 흐려진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룹 공간에서 화연하게 다른 생각을 주장한다면 너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담도 작지 않다. 그러므로 피카소가 말하는 ‘예술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느냐’는 일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의미가 있다.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닌 성인은 잊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매일 똑같이 사용하던 생활방식을 다른 식으로 바꿔보기도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움을 느끼는 기회가 많았던 어린 시기부터 환경이 이어져 왔다면 훨씬 크고 자유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피카소의 예술가 정신은 오늘날 화두로 떠오르는 창의성·혁신과 닮아 있다. 세상은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당당하게 나서서 “나는 그러한 자격을 갖췄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통해 생기게 되는 의식과 관념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호기심과 자유로운 발상을 포용력을 가지고 허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다면 예술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닌 다양성과 개개인의 이야기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창의적인 인재, 즉 예술가로 남을 수 있다. 우리는 피카소가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동경한 것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영동한 발상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창의성의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 아트쿵 실험미술 대표



파블로 피카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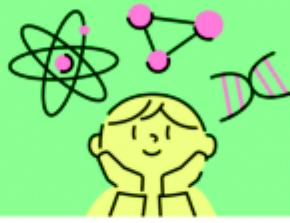
피카소는 왜 아이들을 동경했나?

2

피카소가 가진 예술가 정신은?

3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우려면?



추위극복 필살기 알려주는… 117종 남극 물고기들



김진형 박사의
신비한 생물세계

당연히 남극에도 물고기가 있다

남극 바다에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 남극 바다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남극 해의 차가운 물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피시베이스(FishBase, 전 세계 물고기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3만 4700종의 물고기가 존재한다. 남극 카테고리에서는 약 200종의 물고기가 검색되지만 이 중 일부는 남극 해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 북반구에도 분포하는 종을 포함한다. 엄밀히 남극 물고기라고 할 수 있는 종은 남극 해에서만 생활하는 물고기들이다. 국제수로기구(IHO) 정의에 따르면 남극 해는 남위 60도 이남의 바다를 포함하며, 엄밀히 말해 남극 해에서만 생활하는 물고기만이 남극 물고기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연구와 상업적 어획 활동에 의해 밝혀진 분포와 서식처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남극 물고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극 바다에 특화된 적응하고 진화한 특정 분류군에 주목해야 한다. 이 분류군이 바로 남극암치아목(Nototheniidae)이다. 이 분류군은 159종의 물고기를 포함하며, 그중 117종은 남극 해에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극암치아목은 남극암치과, 수염남극양태과, 남극양태과, 남극빙어과, 하르파기페르속과 등 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남극 해의 특정 부분에서 서식한다.

이런 물고기들은 남극 바다의 차가운 환경에 맞춰 독특하게 적응하고 진화한 종들로, 남극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극암치아목은 상업적 어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극암치과 물고기는 일부가 횟집에서 고가로 판매되며, 특히 파타고니안 이빨고기와 남극이빨고기가 유명하다. 이 분류군에는 다양한 생태적 특징을 가진 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극 해의 극한 환경에 적응해 생존하는 다양한 전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남극빙어과 물고기는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거의 없어, 차가운 남극 해에서도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의 생태적 특성과 적응 전략은 남극 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남극 물고기들은 다양한 생태적 적응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등근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갖춰 뛰어난 이동성을 자랑하며, 입이 크고 가시가 있는 등지느러미와 부드러운 등지느러미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몇몇 종은 부레 없이도 유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골격 내 미네랄을 줄이고 지질을 증가시키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진화 전략을 취한다. 이들 대부분은 육식성이며, 산란 기간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이뤄지며, 알은 부화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그 많던 물고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원양어업에 의해 어획된 남극이빨고기.

상업적 어업,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원양어업은 남극 바다의 해양생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다. 초기에는 펭귄을 대상으로 한 어업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크릴과 물고기의 본격적인 어획이 시작됐고, 이는 고래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에게 영향을 미쳤다.

무차별한 어획으로 인해 물고기의 어획량은 급감했고, 어선들은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했다. 1969년부터 사우스 조지아섬 주변에서 상업적 어업이 시작됐고, 이는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업이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약 50만t의 남극 대리석무늬암치가 어획됐고, 그 후 4년간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해 '0'에 이르렀다. 이는 무분별한 남획의 결과로, 사우스조지아섬 주변에서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어업은 더 먼 남오크니 섬과 사우스셰틀랜드 제도까지 확대됐다.

1969~1973년 사이, 남극 메커럴빙어, 남극이빨고기, 남극대리석무늬암치를 포함한 주요 남극 어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단 4년 만에 이들 대부분의 어종은 원래 개체수의 50%까지 줄었으며, 10년 후에는 어업 이전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뒤늦게 인식한 국제사회는 1980년 남극 해양생물 보존협약에 서명하고, 1982년 남극해양 생물보존 위원회(CCAMLR)를 설립했다. 1983년부터 1990년대까지 여러 지역의 어업을 폐쇄했지만,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건강한 생태계로의 복귀는 불가능했다. 전면적인 조업 금지가 결정될 무렵, 일부 물고기 개체수는 상업적 어획 시작 전 자원량의 5~10% 미만으로 감소했다.

합법적 어업 중단 이후 30년이 넘도록 남극 어종의 개체 수가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물고기 자체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남극 바다 표범, 젠루펭귄, 마카로니펭귄, 검은머리흰가슴가마우지 등 다양한 포식자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졌다. 이 사실은 남극 해양 생태계 내에서 물고기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시키며, 한번 파괴된 자연의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슬픈 현실이다.

국지연구소 박사



1 남극어종 개체수
왜 감소했나요?

2 남극어종은 생태계
에서 어떤 가치를
갖나요?

3 개체수 회복을 위
한 대책은?



좋은 대학만 정답일까… 카프카에게 물어보세요



프란츠 카프카 법 앞에서·변신

정혜제의
책갈피

이따금나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질서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다.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일상 속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구멍과 문득 마주치는 순간이다.

카프카(1883-1924)의 매우 짧은 단편소설 '법 앞에서'(1915)를 읽어보자. 법 앞에 문지기가 서 있고 시끌 사람 하나가 와서 법 안에 들어가기를 청한다. 문지기는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고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물음을 그럴 수도 있다는 여지만 남긴다. 문은 언제나처럼 열려 있고, 그 름 사이를 힐끔거리며 문지기가 들어보내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는 시력도 청력도 일어가는 노인이 된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문지기에게 꼭 궁금했던 질문, 왜 여러 해 동안 나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냐고 묻는다. 이어지는 냉소적인 대답. 그거야 이 입구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니까. 임무가 끝났으니 나는 이제 문을 닫고 가겠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입구라면서 문지기는 왜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문지기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이 세상에 편입되는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인지하며 정체성을 찾아가고, 사회적 이름을 얻어 자리매김한다. 인간은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완벽하다고 설정된 타인에 의해 소외되고 부정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존재한다.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스스로 욕망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피할 수 없고 그 간극을 메꾸는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

위태롭게 균형을 유지하던 삶에 균열이 일어나고 탁 트여 나가는 순간이 등장하는데, 그 과정을 포착한 것이 카프카의 중편소설 '변신'(1916)이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직장인 그레고르는 자고 일어나니 벌레가 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이 벌레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출근이라는 임무가 더 시급한 과제다.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할 수도 문을 열 수도 없었다. 그를 깨우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리고 집을 찾아온 회사 지배인의 목소리까지 들려온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모두가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단호하게 돌아서는 지배인, 무서울 정도로 화가 난 아버지, 너무 놀라 돌아섰다 이내 그를 죽은하게 여겨 먹을

것을 쟁겨주는 누이동생, 놀라 울부짖으며 실신한 병약한 어머니…, 순식간에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믿음직한 가장에서 모두의 골칫거리로 변해버린다.

그는 가족의 경제적 안위를 걱정하지만, 가족들은 생각보다 훨씬 능숙하게 달라진 상황에 적응해간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숨긴 채 방 하나를 하숙인에게 세 주기로 한다.

가족은 하숙인들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고 누이동생은 모처럼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준다. 그레고르는 음악소리에 매료되어 금기였던 거실 바닥으로 나간다. 평화로웠던 순간 괴물 같은 그의 존재가 하숙인들에게 발각된다. 하숙인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즉각 방을 비우겠다고 선언한다. 누이동생은 이 벌레는 더 이상 오빠가 아니라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를 가둔다. 어둠 속에 갇힌 그레고르는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이 벌레로 변하는 이야기 '변신'은 '환상'을 다루는 소설이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자신과 타인이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이 달라, 자신의 꿈과 가족이 부여한 역할이 달라 혼란스러워하는 이로 바라보면 그 어떤 소설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간결하고 사실적인 묘사는 비현실적인 설정을 잊게 하며, 인물에게 몰입하게 만든다.

'법 앞에서' 뒷부분을 상상해보자. 주인공은 벼락 화를 내며 문지기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이 나쁜 놈, 넌 네가 마치 어떤 커다란 비밀을 향한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듯이 행세하는구나. 그 문 뒤에 비밀이라곤 없고 이 문은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내 욕망을 잡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 말이야." 그러자 문지기가 그에게 조용히 대답한다. "'그것 보쇼, 이제 당신이 진짜 비밀을 알아내지 않았소. 문 뒤엔 오직 당신의 욕망이 끌어들인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는 현실의 시스템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이고, 어떤 상태처럼 보이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문지기도 세상의 질서라는 게임의 일부였으며, 그가 들어올 수 없게, 그러면서 안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 빛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 문지기의 존재 이유였다. 동경을 가질 만한 그 어떤 숭고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소설 속 아니 현실 속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매경출판 차장



프란츠 카프카



밀줄! 이 문장

"넌 네가 마치 어떤 커다란 비밀을 향한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듯이 행세하는구나."

"이제 당신은 진짜 비밀을 알아내지 않았소. 문 뒤엔 오직 당신의 욕망이 끌어들인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장이 텅장 안되려면 …‘4대 지름신’ 멀리 해야



경제학
공부해봅시다

우리는 상품을 선택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이러한 소비에 대해 때로는 만족하고 때로는 후회합니다. 경제학에서 개인의 소비 목표는 효용의 극대화입니다. 효용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 묶음 가운데 가장 효용을 크게 하는 상품 묶음을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으로 만원을 받는 영희를 예로 들어봅시다. 영희가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 묶음은 다양합니다. 영희는 만원으로 스티커 5개(개당 2000원)를 살 수도 있고 과자 4개(개당 1000원)와 음료수 3개(개당 2000원)를 살 수도 있으며 책 1권(권당 9000원)을 구매하고 남은 1000원을 환경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영희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용돈 범위에서 만족감을 가장 크게 하는 상품 묶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어진 소득 범위에서 계획을 세운 뒤 구매해야 합니다. 예산 안에서 구입할 상품의 목록을 미리 적어보고 구입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상품인지, 상품의 가격과 품질은 적절한지, 자신의 가치관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반면 비합리적인 소비는 자신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는 만족감을 신중하게 해아려보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소비로는 충동 소비, 강박 소비, 밴드웨건 효과와 스냅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충동 소비는 미리 소비를 계획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희가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가판대에서 세일하는 과자를 보고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충동 소비에 해당합니다.

강박 소비는 긴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희가 시험기간이 되면 인터넷 쇼핑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는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말합니다. 밴드웨건은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행진을 선도하는 악대차입니다. 악대차가 나팔 불고 북을 치면서 선두에서 행진하면 그 뒤로 사람들이 호기심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이



게티이미지뱅크

를 본 주위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들면서 떼를 지어 다른 사람들을 훔아가게 됩니다.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따라 소비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영희가 친구들이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 명품 브랜드의 옷을 사달라고 즐라서 구입하는 것이 밴드웨건 효과에 따른 소비 사례입니다. 자신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유행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또는 주위 사람과 같은 상품을 소비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냅 효과(Snob effect)는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상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스냅은 속물을 말하는데 세속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상품은 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구입해서 타인과 구별되려는 소비 행동을 보입니다. 영희가 대다수의 사람이 구입하기 어려운 매우 고가의 한정판 가방을 구입하는 경우 가스냅 효과에 해당합니다. 스냅 효과도 밴드웨건 효과처럼 자신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냅 효과는 밴드웨건 효과와 달리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그 상품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생활은 어떤가요? 합리적인 소비자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신의 소비 생활을 돌아켜보고 개선할 점은 고치고 합리적 소비를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경영연구소 콘텐츠팀



핵심

1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조건

2 비합리적 소비의 다양한 사례

3 밴드웨건과 스냅 효과 차이점

▶ 문제 유행과 같이 다른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늘어날 때, 개별 개인의 선호도 함께 커지는 경제 현상은?

- ① 스냅 효과
- ② 톱니 효과
- ③ 피셔 효과
- ④ 디드로 효과
- ⑤ 밴드웨건 효과

▶ 해설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에 대한 설명이다. 소비자가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훔아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하며 편승 효과라고도 한다. 스냅 효과(Snob effect)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



현역때 3등급, 재수땐 1등급… 비결은 ‘독해력’

“1타 000 선생님 풀커리 뒀는데 4등급 나왔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보자.

모든 강의를 따라다니며 수강하고, 교재 역시 풀세트로 구입해서 하루에 n지문씩, 일주일이면 1권씩 문제를 푼다. 중요 내용을 받아 적고, 반복해서 정리하고, 외운다. 그뿐인가. 유명업체의 모의고사 역시 빠질세라 구독하여 매주 열심히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찾아 듣는다. 책장에는 온갖 교재가 쌓여가고, 형형색색의 필기로 가득한 노트 역시 점점 두툼해진다. 참, ‘열심히’, 하기는 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 선생님이 별로였어. 000 선생님으로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역시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수능 국어’라면, 제발, 이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럼, 어떻게?

2024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을 기록한 수강생의 한마디, ‘국어 본질에 집중했다’.

2023학년도 현역 시절 백분위 85였던 학생이었다. 역시나 유명 강사의 풀커리를 뒀지만 결과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 학생과 초반에는 많이도 부딪쳤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 ‘해설 듣기, 정리하기, 암기하기, 양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다음은 이 학생이 보내준 수강 후기 중 한 문장을 발췌한 것이다. ‘어떤 수업을 들어도 스스로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독해력, 본질에서 멀어지면 그 어떤 스킬도 무용지물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결국 ‘독해력’이 전부란 이야기이다. 강의를 수강하고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습이 독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수능 국어는 오픈북 테스트

수능 국어는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이다. 주어진 지문과 자료를 정확히 읽고, 판단의 근거를 찾아 맞는 선지와 틀린 선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성격의 시험이다. 물론 선택 과목 중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6년간 준비해 왔던 내신 시험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 그대로를’ 묻는 것이 내신 시험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수능 국어는 ‘정해지지 않은 범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는’ 성격의 시험이다. 필요한 핵심 역량은 독해력이다. 해설 듣기, 정리하기, 암기하기, 양치기로는 대비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내신 대비 학습법에서



게티이미지뱅크



이수민 강사의
국어 클리닉

완전히 멀어져야 한다.

‘독서 영역’에서 독해력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문학’도 그렇다고요?

그렇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다. 수능 국어는 ‘이 문학 작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누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으며 필기하고 암기하고 시험 범위에 포함된 작품에 대한 문제를 수백, 수천 개를 풀어서 ‘달달’ 외우는 경지에 도달하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수능 국어 시험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정해지지 않은 범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는’ 것은 문학 영역 역시 마찬 가지이다.

심지어 공부했던 작품이나온다고 해도 그 작품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수능 국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학 역시 학습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다.

압도적 국어실력 비밀은 독해력



누가 뭐라고 해도, 수능 국어 시험을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독해력이다. ‘독서 영역’뿐만 아니라 ‘문학 영역’ 역시 마찬 가지이다. 그럼,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독해력 향상을 위한 각 영역의 구체적인 학습법은 이어지는 회차에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능 국어’를 학습해야 하는지, ‘독서 영역’과 ‘문학 영역’은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양질의 강의와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시기별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수능 국어 백분위 100’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겠다.

메가스터디 강사

- 1 수능국어 본질은 독해력
- 2 내신 대비 학습법에서 벗어나기
- 3 문학영역은 암기가 아니다



하루 영단어 목표는 모의고사 등급 × 20개



주혜연 강사의
영어특강

새 학기를 맞아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25학년도 수능에 역대급 N수생이 몰려온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간고사 기간까지 다가오고 있다. 많은 학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내신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학기 중 틈틈이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을 키워드로 알아보자.

키워드 1. 자투리 시간의 활용 (단어)

학교에서 각각 쉬는 시간에 암기할 단어 목표량을 명확히 정하고 가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야지!'라는 생각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결심과 같다. 자투리 시간 활용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어수선한 쉬는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문제 풀이를 하기보다는 단어 암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암기할 단어 분량=내 모의고사 등급 × 20개
영어 시험을 볼 때 시간이 항상 부족하거나 해석이 잘 안 되는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의외로 어휘력 부족에서 나타난다. 자신의 '모의고사 등급 × 20개'의 단어 수를 매일 공부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어는 짧게, 여러 번 마주치는 방식으로 암기한다.
부담이 없어야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수험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누적 복습 방식은 부담감 때문에 단어 암기를 더욱 미루도록 만든다. 단어를 짧게, 여러 번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처음 단어책을 볼 때는 표제어만, 2회에는 예문까지, 3회에는 유의어·반의어까지 확장해가며 공부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틈틈이 꺼내어 기억이나면 동그라미,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시 반복!

연습장에 다음 날 외울 단어의 영문 철자만 미리 적어둔다. 그리고 영문 단어와 우리말 의미를 매칭시키며 입으로 가볍게 외워본다. 다음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단어장을 꺼내어 보고 기억이 나는 단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단어는 다시 찾아본다. 모든 단어가 동그라미 표시로 바뀔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오늘 암기한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 동일 단어장을 2회 공부할 때까지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3회차부터 암기의 속도와 기억의 지속에서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2. 미리미리 완벽하게 내신 대비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경우 보통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별도 유인물 등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학습 분량



Gettyimagesbank

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지문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체계적 필기로 시험 직전 공부 효율성을 최대화하자!

시험 직전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필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요 문법 사항은 빨간색, 어휘는 파란색으로 색깔에 차이를 두어 필기하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한 내용 등은 지문 옆 메모란에 검은색으로 정리하면 시험 직전 마지막 정리할 때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숲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숲으로 공부하기.

내신 시험의 특성상 상대 평가로 등급을 산출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대체로 미시적 문법 사항을 평가하는 문항의 비중이 높지만,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시, 대조, 인과 등 각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빈칸, 문장의 위치, 단락의 순서 등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세부적인 문장 분석이 필요하다. 문법 사항들도 꼼꼼히 챙기며, 전체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문법적인 측면에서 유의할 점이 많은 문장은 서술형 평가에 대비하여 문장 전체를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숲'으로 돌아가 지문 전체를 살펴보며 주제를 잘 담고 있는 문장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마무리한다.

같은 듯 다른 '변형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자.

상당수 학교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또는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의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내용 중 일부를 '변형'하여 출제한다. 문항의 '변형'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어휘를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인 '유의어'로 대체한다. 둘째, 핵심 표현의 일부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출제한다.

각 지문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반드시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함께 공부해야 변형 문항도 대비할 수 있다.

이투스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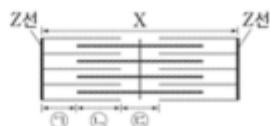
- 1 영어 단어, 짧게
여러 번 익혀야
- 2 체계적 필기로
효율적 내신 대비
- 3 지문·단어 독해
반복하면서
다른 각도로 접근



과포자 좌절금지… 근수축 길이 계산 이렇게

생명과학 문제 중 학생들이 풀기 힘들어 하는 유형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기술 'GT SKILL'을 소개한다. 'GT SKILL'은 근수축 길이 계산 문제가 스르르 풀리는 스킬 'GT X'이다.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두 시점 t1과 t2일 때의 각 부분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구간 ①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②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며, ③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이승후 강사의
생명과학 해부

그림①		그림②		그림③		그림④		그림⑤	
$t_1 = 2\textcircled{1} + 2\textcircled{2} + \textcircled{3}$	$\downarrow -2a$	$X + 2a$	$\textcircled{1} + a \quad \textcircled{2} - a \quad \textcircled{3} + 2a$	$t_1 = 2.8$	$t_2 = 2.2$	$t_1 = 0.7$	$t_2 = 0.7$	$t_1 = 0.7$	$t_2 = 0.7$
$t_2 = 2\textcircled{1} + 2\textcircled{2} + \textcircled{3} - 2a$									
t_1	t_2	t_1	t_2	t_1	t_2	t_1	t_2	t_1	t_2
$\textcircled{1}$	$\textcircled{2}$	$\textcircled{1}$	$\textcircled{2}$	$\textcircled{1}$	$\textcircled{2}$	$\textcircled{1}$	$\textcircled{2}$	$\textcircled{1}$	$\textcircled{2}$
$\textcircled{3}$	$\textcircled{3}$	$\textcircled{3}$	$\textcircled{3}$	$\textcircled{3}$	$\textcircled{3}$	$\textcircled{3}$	$\textcircled{3}$	$\textcircled{3}$	$\textcircled{3}$

위 문제와 같이 근수축 시, 각 구간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많은 학생은 연립 방정식을 세우거나 표를 그려서 풀이한다. 하지만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풀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표를 그려서 풀이를 하면 문제에 주어진 그림과 표를 동시에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따라서 앞으로 근수축 길이 계산 문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모두 해결한 'GT X'를 그려서 풀이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GT X'는 아래와 같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간단하게 그린 후 각 구간을 나눈 것이다. GT X를 그리면 연립 방정식을 세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각 부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림①)

GT X에서 각 부분의 길이는 근육이 수축 또는 이완할 때 각 부분의 길이 변화량을 이용해 계산된다. 이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변화할 때 A대의 길이와 $\textcircled{1} + \textcircled{2}$ 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근육 원섬

유 마디 X의 길이가 $+2a$ 또는 $-2a$ 변할 때 각 부분의 길이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②)

길이 변화량을 적용한 GT X는 다음과 같다. (그림③)

그럼 이제 GT X를 이용해 처음에 봤던 문제를 풀어보자. (표①) 먼저 GT X를 그린 후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를 채워 넣는다. (그림④)

t1과 t2일 때의 길이가 모두 제시된 X를 이용해, t1에서 t2로 갈 때 X의 길이 변화량을 구한 후 X의 길이 변화량에 따른 각 부분의 길이 변화량을 이용해 나머지 부분의 길이를 채워 넣는다. (그림⑤)

근수축 길이 계산 문제는 GT X 각 부분의 길이를 다 채워 넣으면 풀이가 끝난다. 지금까지 GT X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투스 온라인 강의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근수축 구간 변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GT ARROW를 소개하도록 하겠으니 많이 기대해 주길.

이투스 강사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근수축이 일어난다.



머리 쑥쑥 개념

활주설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근수축이 일어난다.

하버드생도 놀라게 한 주입식 교육의 ‘매운 맛’



노가영 작가의
문화 뒤집기



신선한 포맷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대학전쟁’이 최근 시즌2 제작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에 공개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서바이벌 예능 시리즈다. 그런데 작품 포스터를 살펴보면, 제목인 ‘대학전쟁’보다 오히려 ‘서카포연고’의 글자가 자극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서카포연고’가 무엇인가. 서울대 카이스트 포함공대 연세대 고려대의 앞글자를 딴 입시 판의 신조어다. 서카포연고, 전쟁, 대학, 예능… 이쯤 하면 대충 눈치챘겠지만 ‘대학전쟁’은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오직 두뇌만을 활용하여 서바이벌 전쟁을 벌이는 두뇌 배들이다. 혹자는 안 그래도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서카포연고 출연자를 선발한다고, 이로써 학벌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엘리트주의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써운다고 불편해하는지도 모르겠다.

‘대학전쟁’은 당초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했지만 스멀스멀 입소문을 타더니 학부모들과 사회 초년생들은 물론이고 기성세대까지 아우르며 하루 이틀 만에 8회 차를 정주행했다는 후기들이 들려왔다. 블록버스터급 예능도 아닌 ‘대학전쟁’에 왜 N차 시청 인증이 이어지며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을까.

‘대학전쟁’이 선보인 총 19개의 서바이벌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게임은 복잡한 연산 300개를 풀어내는 거대한 산수 지옥이었다. 상위 1%, 아니 어쩌면 상위 0.1% 출연자들을 모아놓고 고작 연산 따위를 시킨다고? 하지만 게임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된다. ‘아! 단순·반복·인내의 연산풀이도 결국 풀이 과정의 전략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구나!’ 이 산수 지옥도 문제를 빠르게 잘 푼 대학이 아니라 창의적인 접근성과 탄탄한 팀워크를 가진 대학이 승리했다. 수능 만점은 비롯해 전국의 내로라하는 천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를 맞대고 종이와 연필을 쥐고 뛰어다닐 때 그들처럼 청춘을 보내고 같은 입시를 겪은 우리는 모두를 응원했다. ‘대학전쟁’의 품격을 높인 건 국내 예능에서 보기 힘든 화려한 세트장이 아닌 출연자들의 진정성이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도 중간중간 ‘웃픈’ 상황들이 재미를 더했다. 특정 게임에서 베네핏을 받은 서울대가 연대와 고대, 하버드 중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는데 연대와

고대가 각각 서울팀을 찾아가 나름의 영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대는 하버드 팀을 선택했고, 대한민국 라이벌 구도의 대표 아이콘인 연세대와 고려대가 한 팀이 됐다. 프로그램 1회부터 서로 앙숙이던 이들이 한 팀이 된 것도 귀여운데, 그들만의 리그에서 명문대학 학생들이 ‘언더독’이 된 것도 흥미를 끌었다.

“처음에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딱딱한 (주입식이라) 창의성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략도 잘 세우고 창의력도

훌륭한 것 같아요.” 하버드vs서울대vs고려대 3강전에서 하버드가 처절히 패배하며 무대를 떠나던 순간 한 참가자가 뱉은 말이다. 하버드 팀이 처음으로 등장한 3회에서 서울대 학생이 “주입식 교육의 매운맛을 보여주자”며 소리치던 장면이 시원하게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다(물론 연산과 암기, 규칙 발견과 공간 지각력 등으로 구성된 게임의 상당 부분이 한국식 교육에 훈련된 아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이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대학전쟁’을 본 사람이라면 국내 팀들의 창의적인 문제 접근과 전략적인 플레이에 ‘우리 애들이 뒤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버드 팀 학생들도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느낀 것이다.

주입식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습기억이 절정을 이루는 청소년기에 지식을 효율적으로 주입시키며 단기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학창 시절 자신만의 원칙과 꿈을 분명히 하되, 결국 지식이 쌓여 지성이 되고 시나브로 지혜가 쌓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트위터, 어도비 등 세계 경제의 흐름을 훤히 알아가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상당수가 치열한 교육열 국가인 인도 출신들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모르긴 몰라도 출연자 상당수는 수년간 주입식 교육을 버텨온 대치 키즈일 것이다. 또 전국 학원가에서 자정이 가깝도록 편의점 삼각김밥과 불닭볶음면과 맥도날드로 끼니를 때우며 버텨냈을 것이다. 획일화된 입시 지옥에서 습득한 지식들을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힘을 키워내고 번뜩이는 전략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의쾌감을 알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팀워크까지 보여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콘텐츠미디어 산업 전문가

사탐1·과탐1로 연세대 의대 뚫을수 있을까

2025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 응시계열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주요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에 학률과 통계, 사탐 응시자는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나 2025학년도 대부분 대학이 이 제한을 풀어 서울대, 고려대 등을 제외하고는 학률과 통계나 사탐 응시하더라도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좀 더 수월한 과목을 선택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은 수험생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증원 이슈가 있어 관심이 높은 자연계 최상위 모집단위인 의예과의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알아보자.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자연계열 수능 선택과목 지정 현황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미적분/기하+과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기하+과탐 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수시)
과탐	성균관대(수시-1과목 필수)	고려대
미지정	서강대 성균관대(정시)	연세대(정시) 고려대(정시-가정교육 간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선택형 수능이 2022학년도 도입된 이후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학률과 통계, 미적분의 최고점과 1등급 커트라인을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최고점~1등급 커트라인 추정

구분	학률과 통계			미적분		
	표준점수	백분위	월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월점수
최고점	137	98	100	148	100	100
1등급 컷	133	96	94	133	96	82

*메가스터디 회원 성적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점수와 차이 발생 가능.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 백분위를 봤을 때 학률과 통계는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는 98점, 표준점수는 미적분에 비해 11점 낮은 137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만점을 받아도 선택과목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또 백분위 반영 대학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자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표준점수보다 차이가 작은 백분위 점수라 할지라도 가산점을 적용하면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의예과가 목표인 수험생이 대학에서 선택과목 제한을 없었더라도 학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2025학년도 의예과 수학 미적분/기하 가산점

구분	수능 활용 지표	대학
3%	표준점수	아주대 인하대
10%	백분위	강원대 순천향대

탐구영역은 수학에 비해 유불리가 덜하며, 탐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과탐보다 사탐의 학습량이 적다는 인식이

있다.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이 사탐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인문계열은 사탐에, 자연계열은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아져 이는 신중해야 한다. [표]를 통해 봤을 때 주요 대학 중 경희대는 변환표준점수에서 4점, 연세대는 과학탐구에 3%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도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예과 과탐 미적분/기하 가산점

구분	대학
3%	연세대 인하대
5%	경상국립대 중앙대 동국대-wise(과탐Ⅱ 선택 시) 가톨릭관동대 (2과목 선택 시)
6%	이화여대 (자연)
7%	가톨릭관동대 (화Ⅱ/생Ⅱ 선택 시)
10%	순천향대
4점	경희대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연세대 2024학년도 탐구 변환점수를 통해 살펴보면 사회탐구를 다 맞은 백분위 100점인 학생이 과탐 백분위 98점인 학생보다 불리한 것을 볼 수 있고 2과목을 모두 과탐을 선택한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2024학년도 연세대 수능 전형 자연계열 탐구 변환 표준점수

백분위	탐구 변환 점수	3% 과탐 가산	백분위	탐구 변환 점수	3% 과탐 가산
100	69.35	71.4305	95	66	67.98
99	68.52	70.5756	94	65.49	67.4547
98	67.75	69.7825	93	65.1	67.053
97	67.13	69.1439	92	64.59	66.5277
96	66.56	68.5568	91	64.18	66.1054

2025학년도 의예과 탐구 선택 현황

구분	1과목	2과목
사탐/과탐	-	가톨릭관동대 경희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조선대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와이즈) 동아대 부 산대 서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 대 한림대	

경희대의 경우, 변환 표준점수에 4점을 더하기 때문에 연세대보다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백분위 약 4점의 차이로 나타난다. 실제로 의예과에 정시 수능 전형 탐구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권 의대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은 많은 대학에서 과탐을 필수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과탐 가산점과 대학 선택의 폭을 고려했을 때 의예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과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설마했던 원금손실이 현실로 … ‘홍콩ELS’의 눈물



후루록 금융
후루록 금융



최근 매일경제신문 등 언론을 통해 ‘눈물의 홍콩 ELS …70대 이상 가입자만 1만7천명’ 등의 제목으로 ELS의 원금 손실 위험이 보도되고 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몇 년 전 은행이 약 16조원어치나 판매했는데 최근 해당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은행이 ELS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은 고령층을 상대로 고위험 상품을 적지 않게 팔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시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ELS가 무엇이고 홍콩H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ELS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ELS, 원금 날릴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우선 개념부터 살펴보자.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 원금보다 큰 손실(초과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ELS와 DLS는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으로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고,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ELS, D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파생상품’은 아니므로 원금 이상의 초과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ELB(Equity Linked Bond)와 DLB(Derivative Linked Bond) 등은 ELS, DLS처럼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므로 ‘파생결합증권’으로 통칭하기도 하나 염밀히 말하면 원금 손실이 없는 채무증권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다음으로 홍콩H지수에 대해 알아보자. 영어로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라는 것으로 HSCEI 혹

은 홍콩H지수라고도 한다. 홍콩증시에 상장한 우량한 ‘중국 기업’ 50개로 구성된 지수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 종합주가지수를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종합해 보면 홍콩H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이 홍콩H ELS인 것이다. 즉 경기가 호황이 되어 홍콩H지수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이익을 수취하나 반대로 홍콩H지수가 하락하게 되어 일정 수준 아래로 진입하게 되면 – 이를 녹인(Knock-In·원금 손실 구간 진입)이라 한다 –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물론 중간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만기에 당초 정한 수준을 상회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노녹인형도 있기는 하다. 금융감독당국은 중국 부동산발 경기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홍콩H지수 등락에 따라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2023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2023년 9월 15일)한 바 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7조원으로 전부 ELS에서 발생했다.

위험성 충분히 설명했느냐가 관건

이러한 손실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에 항상 있기 때문에 ‘자기 투자 책임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 상품의 손익 구조와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자 본인이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의 자기 투자 책임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 금융회사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우리는 금융소비자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후록 윤총 수석전문위원



시사용어 CHECK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과 증권이 결합한 상품으로 원금 이상의 초과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금보다 큰 손실(초과손실)을 입을 수 있는 파생상품과 차이가 있다.



학교폭력, 교육적 접근 필요

광주 광남고등학교 1학년 손준우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같은 문제들이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월 940건으로 연평균 월 721 건보다 30.3% 많았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활발해졌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교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경찰청은 3~4월을 학교폭력 예방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인원을 133명에서 149명으로 늘리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방침이다.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1학교 1변호사제도 시행된다. 1학교 1변호사제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을 때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학교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책임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 안에서는 법적 논리보다 교육적 관계 형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해결 실마리를 법보다 교육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마트폰 의존서 벗어나려면

서울 용강중학교 2학년 오채민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하루 평균 주중에는 4.7시간, 주말에는 6.7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수록 집중력·시력 저하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대면에서의 소통보다 오히려 SNS 상의 소통이 편하고, 친구들과 만나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게임을 하는 게 일상이다. 스마트폰은 편리하다. 편리한 만큼 중독되기도 쉽다. 없으면 불안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 일괄적으로 걷어두고, 수업 중 활용할 때만 꺼내준다. 그러나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건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한창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수업 종이 쳤을 때 멈추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하라는 실랑이를 하다 30분은 훌쩍 지나간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셈이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아직 자기 통제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악영향이 많은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中온라인몰 공습 대책 세워야

광주 광남중학교 2학년 노윤영

중국 직구 앱인 ‘테무(Temu)’ 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저렴한 가격과 무료배송·반품 혜택을 내세워 대부분 나라에서 앱 다운로드 순위 최상위권에 올랐다.

알리나 테무에서 산 제품을 개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리킹’ ‘테무킹’이라고 하는데, 1000원, 2000원짜리 물건도 해외 직구가 가능하기에 초등학생들까지도 ‘테무킹’ 등을 SNS에 올릴 정도다. 하지만 최근 중국 커머스, 즉 C커머스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플랫폼들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짹퉁과 불량품 판매, 유해, 선정성 논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파상공세로 국내 소비재 시장 잠식은 물론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응해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직구 앱에서 구할 수 없는 고급 제품과 중국 플랫폼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세제 손질과 행정적 규제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대증원, 의사들만의 일 아냐

부산 진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박현진

교육부에서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입시에서 의대 졸립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대 증원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봄야 한다. 서울대학교 전체 이공계 모집 정원이 1775명 정도인데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이 학생들이 전부 의대로 갈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미래 의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저출산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가 아닌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극단적으로 줄여들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 기준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1위이고, 수술까지 걸리는 기간 또한 짧다. 그런데 왜 응급실에 가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보도되는 것일까?

이는 필수 진료과이나 비인기 진료과인 흉부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편중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비인기 필수 진료과와 비수도권 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이미 의대에 재적 중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47회

민매경 test

시험일

2024년 5월 25일(토)

접수기간

4월 8일(월)~5월 13일(월)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민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ktest.org> | 이메일 : mkktest@mk.co.kr